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주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함

성경: 히 11:1, 6, 12:1-2, 롬 10:17

- I.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얹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 히 12:1.
- A. 구름은 백성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민 9:15-22), 구름 가운데서 주님은 백성과 함께 계신다(출 13:21-22). 헬라어에서 ‘증인들’은 ‘순교자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행 1:8).
1. 믿음의 백성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얻을 수 있다. 모든 믿음의 백성, 곧 교회 사람들은 구름이다. 주님의 임재를 찾는 최상의 길은 교회에 오는 것이다.
 2. 누군가가 주님의 인도를 찾는다면, 그는 반드시 구름인 교회를 따라야 한다. 주님은 구름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름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따름으로써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다 — 비교 고전 14:24-25, 시 36:8-9, 16:11.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주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을 얻기 위해 반드시 경주를 해야 한다(고전 9:24). 이 상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엡 2:8, 고전 3:15), 특별한 의미에서의 보상이다(히 10:35, 고전 3:14). 사도 바울은 경주를 했으며 상을 받았다(고전 9:26-27, 빌 3:13-14, 담후 4:7-8).
1. 무거운 짐은 무거운 것이나 짐이나 방해물이다. 경주하는 사람들은 경주에서 이기는 데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불필요한 무거운 것과 방해되는 짐을 벗어 버린다.
 2. 이 문맥에서 얹어매는 유일한 죄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길을 포기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고의적인 죄이다(히 10:26). 무거운 짐과 얹어매는 죄는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 언약의 길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믿는 이들을 좌절시키고 막았다.
- C.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 살후 3:5.
1. 이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롬 5:5)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다(요일 4:19).
 2. 이 인내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것이다 — 비교 계 1:9.
- II.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 히 12:2.

- A. 우리는 다른 모든 목표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곧 믿음의 기원자와 개시자와 근원과 원인이시다.
1.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히 2:9) 이 놀라운 예수님은 우주 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분이시다.
 2. 그분은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그분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그분께로 끌어당기신다 — 아 1:4, 호 11:4, 렘 31:3.
 - a. 우리가 그분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분의 아름다움(사랑스러움과 상냥함과 유쾌함)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 시 27:4.
 - b.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혹하는 것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목할 수 있겠는가?
- B.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 롬 3:22과 각주 1, 갈 2:16과 각주 1.
1.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매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 롬 10:17.
 2.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는 믿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3. 우리는 믿음에 의해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곧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믿음이다 — 벧후 1:1, 골 1:12.
 4.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고전 15:45하) 그분은 그분 자신, 곧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신다.
 5.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인데, 이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믿음의 요소로 분배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신다.
 6.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갈 2:20).
- C. 믿음은 실질화하는 능력인 여섯 번째 감각이다. 우리는 이 감각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에 실질을 부여하여 실질화한다 — 히 11:1.
1. 실질화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2. 우리의 오감(五感)의 기능은 바깥세상의 것들을 실질화하는 것, 곧 객관적인 이 모든 항목들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다.
 3.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한 것이며 코는 냄새를 맡기 위한 것이듯이, 믿음, 곧 우리 믿음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실재화하는 기관이다 — 고후 4:13.
 - a.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영, 곧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께 관해 체험한 것들을 믿고 말해 내야 한다.
 - b.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의심이 있다.
 4.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시하고 바라본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 고후 4:18.
 - a.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한 삶이다 — 롬 8:24-25, 히 11:27, 벧전 1:8, 갈 6:10.

- b. 교회의 하락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보이는 것들로의 하락이다.
 - c.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를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회복하는 것이다.
 - 5.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시켜 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자 증명이다.
- D.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히 11:6상.
 - 2.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직역하면, ‘...이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 히 11:6, 비교 창 5:22-24.
 - a.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 요 8:58, 전 1:2.
 - b.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반드시 홀로 유일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히 11:5.
 - c.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이다’이시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다 — 눅 9:23.
 - d. 나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셔야 한다. 곧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 갈 2:20.
 - e. 주님은 다소의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에게 “나는 ...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 — 행 9:5.
 - 1) 주님은 “나는 위대한 ‘...이다’이다. 나는 ‘...이다’이다. 너는 내가 ‘...이다’인 것과 너는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 2) 결국, 사울은 끝났고 바울이 등장했다 — 행 13:9.
 - f. 이것이 믿음이다 —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존 벨슨 다비)
- E.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 곧 우리 믿음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 히 12:2상.
- 1.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은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 히 12:1.
 - 2.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여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게 했는가에 달려 있다 — 롬 12:3.
 - a. 진보 단계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생긴다 — 살전 5:17.
 - b.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이 믿음의 근원이신 주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 히 4:16, 롬 10:12, 딤후 2:22, 엡 6:17-18, 히 4:2.
 - c.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넘쳐흐르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상호 관계가 있게 된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는다 — 롬 1:12, 몬 6.
 - 3. 우리의 거듭난 영인 우리 믿음의 영이 사탄이 조직하고 강탈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 — 요일 5:4, 요 3:6, 고후 4:13, 요일 5:18.
 - 4. 억누를 수 없고 무한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분발시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보냄받고 순교한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한다 — 눅 18:8, 빌 2:20, 롬 16:3-4, 행 20:24, 딤후 1:4, 히 12:3, 비교 사 8:4.

F.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1.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눅 24:25-26),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어 그분의 표현을 위해 많은 형제들을 산출할 것임(요 12:23-24, 롬 8:29)을 아셨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요 16:20-22)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으며,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자원하여 자신을 넘겨주셔서 그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2.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하늘들에게까지 지극히 높이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막 16:19, 행 2:33-35),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빌 2:9-10),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며(행 2:36), 영광과 존귀로 그분께 관을 씌우셨다(히 2:9).
3.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하고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늘과 생명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일생의 모든 노정을 통과하도록 하시며,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 히 2:10, 고후 3:16, 18, 뱀전 5:4, 딤후 4: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믿는 이들의 믿음

나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와 우리 자신에 의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지님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다(엡 4:13, 딤후 1:19하, 딤후 4:7). 두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이다(갈 2:20).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객관적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주관적인 행위, 곧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활동하는 믿음이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님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이다(롬 3:22과 각주 1, 갈 2:16과 각주 1).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믿음이 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뱀전 1:2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려고 우리 속에서 움직이시어 우리로 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행 16:31).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라고 말한다.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해 주었다.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 매혹되었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는 한 남자가 어떤 여인을 봄으로써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가 그녀를 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이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을 산출한다. 사실상 그것은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매력이다. 복음 전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

을 들은 후에, 즉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 후에,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감상이 있으며, 그분에 대한 당신의 감상은 그분의 매력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다. 우리는 그분에 관해 듣기 때문에, 즉 그분을 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 안에서 그분에 관한 무언가를 본다.

만일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면, 이 로마서의 결정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것에 관하여 말해 주라. 논리적이고 사려 깊은 많은 사람들이 우주 안의 그러한 놀라운 인격에 매혹될 것이다. 여러분의 활력 그룹에서 밖으로 나가 여러분이 이 메시지들에서 들은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접촉하여 보라.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고서, 즉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고서 누가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는가?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보는 것과 같고,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합당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동안, 그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전파에 함께 하신다. 그러한 복음 전파는 여러분 밖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즉시 그러한 전파에 함께하시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은 회개하며, 그러한 분을 감상한다. 동시에 여러분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곧 여러분의 믿는 행위이다. 여러분의 믿는 행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의 믿는 행위는 사실상 그분의 매력에 대한 반응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이다. 죄인들이 아닌 믿는 이들만이 이런 종류의 반응을 갖는다.

만일 여러분이 이 중점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는 것까지도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너무 매혹적이시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누가 당신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구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비록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믿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음을 믿고 그 결과 구원을 얻는다(롬 10:9하-10상, 5:1).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롬 5:2).

로마서 9장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율법 준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로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바울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롬 9:30-33). 그리고 나서 10장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4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고 말하는 복음을 들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종결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완결이 되신다. 로마서 처음 네 장은 법리적으로 의롭게 됨을 다룬다. 그런 다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유기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룬다. 그런 후에 10장은 실행적으로, 믿는 이들의 믿음에 관하여 다룬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의롭다 함을 얻도록 율법의 완결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들의 믿음, 이 셋은 모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됨

결국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들의 믿음, 이 셋은 모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실 뿐 아니라 구조이시기도 하다.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온 우주 가운데서 아주 강한 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

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해 드리기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어느 누구와도 행복해하실 수 없을 것이며, 행복해하시려고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신약에 따르면, 우리는 믿는 이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신약에서 오직 세 번 사용된다(행 11:26, 26:28, 벧전 4:16).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 많은 때 믿는 이들로 언급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 즉 믿는 이들의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 원래의 어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별명이었으며 합당한 이름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러한 별명, 곧 일종의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좋은 명칭이 아니다. 만일 내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이방인 교수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여러분을 믿는 이들과 부른다면,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믿는 이들’은 달콤한 칭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회복역> 16절 각주 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이며, 라틴어에서 형성된 말이다. 접미사 ‘아노스’는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로마 제국의 명문가에 예속된 노예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황제 곧 가이사, 헬라어로는 ‘카이사르(kaisar)’를 숭배하는 사람을 ‘카이사리아노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카이사르의 추종자’, 곧 ‘카이사르에게 예속된 사람’을 뜻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 제국 내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황제인 ‘카이사르’의 적수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안디옥에서(행 11:26)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크리스티아노스(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별명으로서 비난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말한다. 즉, 어떤 믿는 이가 박해자들에게서 경멸을 받는 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고난을 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믿음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라는 칭호는 믿음과 관계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믿는 것, 즉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히 11:6하). 이것은 매우 단순하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에게 그분이 ‘...이다’이심을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여쭙어보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나는 ...이다’이다(I Am That I Am).’라고 말씀하셨다(13-14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다’(be)라는 동사이다. 그분은 ‘나는 ...이다’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다. 그분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이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분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내가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요 8:24)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내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28절)라고 말씀하셨다. 이 장 끝부분에서 유대인들은 그분께 “그대가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입니까?”(57절)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58절)라고 답변하셨다. 문법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된 시제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습니다(I was).’ 그러나 주님은 “나는 ...이다(I Am)”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바로 여호와이심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직역하면, ‘...이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현재 시제로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셋을 본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부르신다. ‘오실 분’은 ‘계속 존재하실 분’이다. 이것은 온 우주 가운데서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직 한 분만이 ‘...이다’이시다. 그분은 실재이시므로 ‘...이다’이시다. 그분에 의해 창조된 다른 모든 것들은 실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다(전 1:2).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와 달과 생물들과 하늘들과 땅이 모두 헛된 것들이다. 오직 한 분만이 ‘...이다’이시다. ‘...이다(be)’라는 동사는 존재를 함축한다.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나는 ...이다’라는 칭호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어 번역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너무 피상적인 것이다. 영어 번역은 헬라어와 같은 뜻으로 번역되어서 매우 훌륭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함축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다’이시다. 음식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음식’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위대한 ‘나는 ...이다’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 생명이니”(요 14:6), “나는 부활이요”(11:25), “나는 ... 문입니다”(10:7, 9),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10:11), “내가 생명의 떡이니”(6:35)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참된 음식이시다. 실재하는 오직 한 종류의 떡이 있다. 이 떡은 예수님, 곧 위대한 ‘나는 ...이다’이시다. 그분은 숨이시고(20:22), 생수이시고(4:10, 14), 생명나무이시다(15:1, 14:6상, 계 2:7).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1:1, 20:28-29, 롬 9:5), 아버지이시며(사 9:6, 요 14:9-10), 아들이시고(마 1:1, 요 20:31), 그 영이시다(고후 3:17, 고전 15:45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다.

성경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한다(요 3:15-16, 36). 젊었을 때,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건강한 소년으로서 내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다. 후에, 나는 우리의 생명이 거짓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실재하는 생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온 우주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집회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애너하임은 아무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구 전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그것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것들은 끝날 것이다. 사실상 보이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다(고후 4:18).

그러면 무엇이 존재하는가? 누가 존재하는가? 오직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아주 중대한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만일 어떤 남편이 하나님만이 ‘...이다’이시고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그 자신에 의해서나 그 자신 안에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갈 때,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이다’이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겠는가? 여러분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다’이시므로 그분이 가신다.’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든 당신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다’이신 분이 되도록 당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나는 아니

다. 그러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사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분은 ‘...이다’이다. 나는 아니다. 내가 물건을 사러 가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한다. 당신이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집을 때, “그분이신가, 나인가?”라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믿음은 무엇이든지 행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같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누가 사는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종결되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다’이다.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다’는 짧은 말씀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분께서 모든 일에서 오직 한 분 곧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형제들은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아내에게 남편이 되는 이는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만일 어떤 자매에게, 그리스도를 ‘...이다’이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녀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그녀는 오직 하나의 남편, 유일하신 남편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만이 남편이다. 어떤 남편도 참남편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헛되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만일 당신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어야 하며, 이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함축한다. 당신은 끝났다.

결혼 예식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례를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당신이 신부입니까? 당신이 신랑입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신랑은 “아닙니다. 내가 신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신부는 “나는 신부가 아닙니다. 나는 아주 불품없고 가련합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가 신부가 아니라 그분이 신부이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믿는 이이다.

당신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아주 깊은 것이다. 그것은 당신은 아니며 그분께서 ‘...이다’이심을 당신이 깨닫고 있음을 암시한다. 당신이 아니라 하는 것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의미이다. 어떤 자매가 결혼하려고 할 때,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녀의 결혼은 끝장날 것이다. 그것은 믿는 이의 결혼이 아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믿는 이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십니다. 저는 합당한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축복인지! 이것은 모든 일에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축복이다.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눅 9:23)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직역하면, ‘...이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히 11:6)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당신이 오직 그분만이 ‘...이다’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온 우주 안에서 그분만이 ‘...이다’이시며,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떤 것이어서도 안 된다.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분만이 모든 것이어야 하고, 그분만이 존재하셔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매우 도전적인 젊은이였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나를, 나의, 나의 것’이었다. 사울에게는 첫째가 ‘내가’이고, 중간이 ‘나의’, ‘나의 것’이고, 마지막이 ‘나를’이었다. 모든 것이 다 소의 사울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를 땅에 엎드리지게 하셨으며,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물었고, 주님은 “나는 ... 예수다.”(행 9:5)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나는 위대한

‘...이다’이다. 나는 ‘...이다’이다. 너는 내가 ‘...이다’인 것과 너는 ‘아니다’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결국 사울은 그의 이름을 바꾸었다. 사울은 끝나고 바울이 등장했다(참조 행 13:9과 각주 1). 이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외에는 그 무엇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점검해 보겠다. 만일 하나님만이 ‘...이다’이시라면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찬송가 36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 허공을 치듯 분투 앓고/ 새 생명 좇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무덤 속에 있는가? 오늘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다비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아니다. ‘나를’도 아니고, ‘나의’도 아니며, ‘나의 것’도 아니다. ‘그분’이, ‘그분을’, ‘그분의’, ‘그분의 것’만이 존재한다.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그 사이의 모든 것이시다.” “주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찬송가 433장 5절).

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1:4)라고 선포했는가? 그것은 하락된 교회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종교 단체는 천주교이다. 그들은 ‘교회(the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로마 교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교황이 말하기를 ...”이라고 한다. 교황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천주교나 로마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믿음이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다. 나는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머리를 빗고 있을 때, 누가 빗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다. 머리를 빗으면서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매들의 경우에 대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빗고 계신다면, 그분은 당신의 방식대로 머리를 빗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머리를 빗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형제들이 나를 방문하러 올 때, 나는 자주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형제들이 저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저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곧 나는 나가야 하고 그분께서 안에 계셔야 함을 믿는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심지어 사역 집회 끝에도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교통할 차례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분의 차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차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나는 자주 주님께 “제가 아닌 당신이 말씀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 안에 사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낸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고봉 메시지, 11권, 로마서 결정 연구 I, 93-106쪽)